

# 비포장 도로 전국 최고 건설 예산 오히려 줄어

## 도로망 열악한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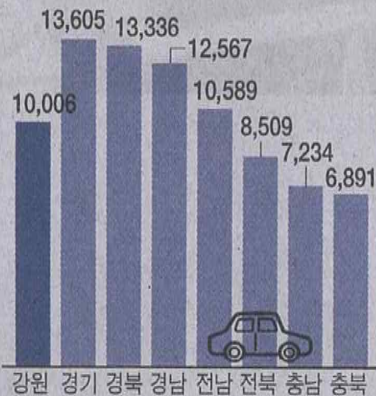
군도 비포장률 28% 가장 높아  
도로 총연장도 사실상 '꼴찌'  
타 시·도 연계망 조속 준공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한 강원도의 도로망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포장도로 비중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도의 산악 지형 특성상 천문학적인 도로 공사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도로 총연장은 1만6km(2017년 말 기준)로 전국 8개 도 지역(제주 제외) 중 5위에 그쳤다. 강원도보다 도로 연장이 짧은 전북과 충·남북은 면적이 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꼴찌다. 경북의 경우는 강원도에 비해 면적은 12%가량 넓지만 도로 길이는 25%나 길어 훨씬 나은 교통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지자체별 도로 총연장(km)



비포장률도 심각하다. 도내 군도 3,338km 중 비포장도로는 937km로 28%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강원도 고속도로 길이 역시 472km로 경기, 경남·북에 이어 4번째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은 비교적 구색을 갖췄으나 도내 시·군 간을 잇거나 인근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은 열악한 셈이다. 실제 강원도의 지방도 길이(1,646km)는 충남(1,678km)보다 짧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 비포장 도로 전국 최고 건설 예산 오히려 줄어

-1면에서 계속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통계는 춘천~철원고속도로,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이를 연계하는 교통망의 조속한 준공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1,700억원에서 올해 1,65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가 강원도에 대한 SOC 예산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는 산악지형으로 인해 터널, 교량의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타 지역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비용편익도 잘 나오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로 건설에도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